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유영민 목사
-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 설교 찬송할 이유들 (시 103: 1-5) 이진수 목사
- 결단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 다함께
-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2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

“자유하는 법” (빌립보서 4:10-13)

사도 바울이 외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의 핵심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얻고 다 성취할 수 있다” 는 의미가 아니라 “주 안에 거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 함을 누리고 살 수 있다” 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 또는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영적으로 볼 때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묶임을 받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어떻게 힘든 상황에서, 물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여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유 할 수 있는 원리는 **첫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라고 환경을 탓하는 것은 내가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유함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려면 어떠한 상황과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선택하여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자유함을 누리고 살려면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유함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12 절의 말씀과 같이 배워야 합니다. 문제와 어려움, 나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할 때 끌려 다니거나 지배받지 말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노력하며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내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려면 나를 바꾸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상황과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변할 때 상황과 다른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바꾸는 것이 아닌 나를 바꾸려고 할 때 변화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묶여 사는 것이 아닌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유함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사람과 상황과 문제에 지배받는 묶여 사는 삶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소식

1. **중보 기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실시간 새벽예배** - 주중 새벽 예배 (화-토 6시) 를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면 예배** - 토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행정지침에 따라 마스크와 발열 체크등 준수하여 주십시오. 예배 후 모임과 식사는 없습니다.
4. **부장 모임** - 오늘 오후 12 시에 부장 모임이 있습니다.
6. **초원 모임** - 6월 20 일 주일 오후 12 시에 초원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6/13	6/20	6/27	7/04
대표기도	유영민	심영민	김영란	윤완선
헌화성도				
봉사당번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3,480.00	

행사 및 모임

6-8 월	야외예배	날짜미정 (주일)
9 월	교회창립 기념예배	9 월 5 일 (주일)

목장현황

목장이름	모임 날짜	모임 장소	인원	다음 장소
소망목장	1 월 22 일	이진수	17	교 회
믿음목장	2 월 23 일	교 회	7	교 회
나눔목장	2 월 23 일	유영민	6	심영민
섬김목장	3 월 05 일	이진수	8	이진수
은혜목장	2 월 09 일	정명희	7	윤완선
신바람목장	1 월 11 일	이진수	6	손다니엘
둥지목장	2 월 02 일	이인호	5	오상균
따스한목장	1 월 11 일	김인수	7	서영희
살롬목장	2 월 21 일	조정욱	7	김창용

*목장모임은 각가정에서 돌아가며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선교지 안내

목장	목자/목녀	연락처	선교사
소망목장	정병철	510, 415-4156	선교사 (Malaysia)
믿음목장	박종철/박승자	510. 909-8612	유성남 (중국)
나눔목장	유영민/유경애	510. 318-0747	정주환(소망공동체)
섬김목장	이진수/이은진	510. 415-0671	장철호 (미얀마)
은혜목장	윤완선/윤선예	510. 340-1014	나순규 (Indonesia)
신바람목장	유경주	010 6427-2431	박완주/헝가리집시
둥지목장	이화선/이인호	510. 915-5578	K 선교사(Malaysia)
따스한목장	김영란/김인수	510. 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살롬목장	조현숙/조정욱	510. 396-6952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지옥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반박하는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인간을 그 끔찍한 지옥에 영원한 고통을 받도록 보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은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한 기독교의 색깔은 가지고 있지만 이단들 사이에서도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 자체를 믿지 않고, 어떤 사람, 악한 사람은 죽은 후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재생의 기회를 부여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죽음 후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 윤회설이나 또는 죽으면 생이 끝나는 것이 더 이상의 세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죽음 후에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 분명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더 이상 재생이나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며, 죄에 대한 형벌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을 지배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배하면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은 이 세상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곳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따스함과 용서와 자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이기에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지옥에 보내신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악인은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거부한 사람을 억지로 그분의 통치 아래 끌어다 놓지 않으십니다. 죽을 것 같은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혐오감과 증오감이 얼마나 큰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하나님이 억지로 천국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가 천국에서 맛보는 고통은 지옥에서 맛보는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여 가는 곳입니다. (최영기목사님의 칼럼 중에서)

예배및모임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0 시 30 분	본당
어린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유치부실
영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영어부예배실
주일성경공부	주일오후 1 시	유년부실
수요기도회	수요일오후 7 시 30 분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화-토오전 6 시	본당
목장모임	매 주	목장별각가정

섬기는분들

담임목사: 이진수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Paul & Lena	510-872-2212	Paul.lee@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510-415-1696	ejoysong@gmail.com
안수집사: 고헌명, 윤완선		
섬김목장:이진수목사	소망목장: 정병철교사	믿음목장: 박종철목자
나눔목장:유영민목자	따스한목장:김영란목자	은혜목장: 윤완선목자
둥지목장:이화선목자	살롬목장: 조현숙목자	신바람목장: 유경주목자

교회약도

